

지역 소식통

정읍시 공동체활성화센터
마을 평생학습 본격 운영

정읍시 공동체활성화센터(이 사장 이봉열)가 문화·복지 서비스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들의 여가문화 감성을 해소하기 위한 마을 평생학습을 본격 추진한다.

마을 평생학습은 학습 기회와 교육여건이 열악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학습이 일상화 되도록 다양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마을공동체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고, 지속 가능한 학습공동체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마을별 특성에 맞는 학습 동아리 활동과 체험활동을 통해 배움공동체 문화를 확산하고 주민 스스로의 삶을 의미 있게 엮어갈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올해는 지난 4월 공모 신청을 통해 선정된 14개 마을을 대상으로 5월부터 11월까지 총 80 회 교육을 진행한다. 교육은 소모임 동아리 활동지원과 주민 여가활동을 위한 체험활동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한반도 첫수도 고창법상
주요 버스터미널 광고 화제

비식도시 고창'을 대표하는 열다섯 곳의 맛집인 '한반도 첫수도 고창법상'이 주요 버스터미널에 소개돼 큰 화제를 모으고 있다.

26일 고창군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한 달간 광주유스퀘어, 전주고속버스터미널, 부산 서부버스터미널의 게시대에 '한반도 첫수도 고창법상'이 소개되고 있다.

한반도 첫수도 고창법상은 풍요로운 고창 고창의 청정 농산물로 요리하는 음식점을 모아 만든 브랜드다. 현재 땅·물·불의 세 가지 테마로 15곳의 외식업체 고창의 맛을 전하고 있다.

고창은 산, 들, 강, 바다, 갯벌을 아우르는 예부터 살기 좋은 땅이었다. 무기질과 미세달을 함유한 비옥한 황토가 분포되어 있고, 2000년 전 보리와 갈대가 펼쳐진 땅이라는 의미의 모로바티국이 문명을 꽃피웠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로컬푸드 안전 인증제'

지역 우수 농특산물 군수 인증... 안전·신뢰성 '으뜸'

전북 고창군이 지역에서 생산된 농·축·수산물 등의 안전성과 품질을 군수가 책임지고 인증하는 '고창로컬푸드 안전 인증제'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로컬푸드 안전 인증제는 지역특거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생산단계에서 가공 유통단계까지 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의 안전 기준을 설정한다. 이후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과 가공식품 등에 대해 지자체장이 안전하다는 것을 인증하게 된다.

용역 과업지시서에는 △고창로컬푸드

안전 인증제 관리체계 구축 △고창로컬푸드 안전·품질관리 비전 및 추진전략 수립 △고창로컬푸드의 정체성을 담아낼 브랜드 개발 △안전·품질관리분야 연계사업 및 신규사업 발굴 등 지역여건에 맞는 효율적인 인증체계를 구축 등이 담겼다.

군은 점점 증가하는 고품질 친환경 농특산물의 수요에 대응하고, 소비자 트렌드에 맞춘 친환경 농산물 생산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지역 농특산물의 선순환 체계를 만들어 대도시에 고품질농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농가들의 소득증

대에 도움을 줄 전망이다.

군은 내년 상반기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농가들을 위한 신규 사업 발굴 및 교육 등을 통해 고창로컬푸드 안전 인증제의 조기 정착과 지역특거리 종합계획(푸드플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고창군청 박성기 농어촌식품과장은 "고창로컬푸드 안전 인증제 구축을 통해 농업인은 고품질의 책임있는 먹거리를 생산해 안정적인 소득을 올리고, 소비자는 누구나 안전하고 신선한 먹거리를 맛볼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성공적인 인증시스템 도입과 정착을 위해 농가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신속하고 명확한 수사가 진행되기를"

김민영 정읍시장 후보, 이학수 후보의 태양광 의혹 수사 촉구

김민영 후보에게 제기됐던 '산립조합 배임 혐의'가 허위사실로 명명백백히 드러났다.

반면 상대 후보인 이학수 후보의 태양광 의혹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어 경찰의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정읍시장에 출마한 김민영 후보는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정읍경찰서로부터 김민영 후보를 상대로 산립조합 배임 고발장이 최종 불송치(각하) 됐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공천과정에서부터 명백한 허위사실임을 수없이 해명했지만 공천권을 휘두른 몇몇 사람들은 귀를 닫았고, 그로 인한 공천과정의 모든 책임이 그들에게 있음이 분명해졌다"고 밝혔다.

김민영 후보는 "이 순간까지도 분식회계나 배임이니 하면서 저를 열탕하는 모든 행위는 어떻게든 선거에 이기고자 받고 있는 허위사실일 뿐"이라며 "잘못된 공천에 대한 책임뿐만 아니라 그동안 저에게 자행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책임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민영 후보는 "저에게 제기됐던 의혹이 일소해 해소된 반면, 이학수 후보의 태양광사업 의혹은 눈덩이



처럼 쌓이고 있다"며 "많은 시민들은 명확한 진실규명을 원한다"고 말했다. 김민영 후보는 "어제 보도된 전북방송 뉴스를 보면 조합원 자격이 없는 공무원들을 대신해 차명으로 사업 인허가를 받았다고 분명히 밝혔다"며 "이는 위계에 의한 공무원행위해제에 해당한다는 것이 법조인들의 하나같은 의견"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토론회 토론회에서 이학수 후보는 당초 5000만원만 받았다고 했었는데, 추가로 5000만원을 더 수수한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5000만원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하지 못했다"며 "추가로 받은 5000만원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없다면 이는 대가성으로 받은 의혹의 돈이며, 명백히 단풍단한우영농조합에 피해를 준 배임이나 공갈에 해당될 수 있다는 법 해석"이라고 일갈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 종료 임박 신청 당부

부안군, 2020년 8월 5일부터 올해 8월 4일까지 한시적 시행

부안군이 2020년 8월 5일부터 올해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신청 마감일이 70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신청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부동산 특별조치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부동산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적용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중여·교환 등의 법률 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이다.

읍·면 지역은 모든 토지와 건물은

대상이다. 단 소유권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에 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신청방법은 부동산 소재지에 위치한 5인 이상 보증인(자격보증인 1명이상 포함)의 보증서와 확인서 발급 신청서를 군청 민원과로 접수하면 된다. 다만, 토지와 건축물은 보증서 한 장에 같이 작성할 수 없으며, 확인서 발급 신청 시 토지는 민원과 토지관리팀, 건물은 민원과 건축허가팀에서 처리한다.

군은 신청서를 접수하면 보증취지 확인 현장조사, 이해관계자에게 통지하고 공고절차 등을 거친 후 확인서를 발급하고 있다.

공고기간 중 이의신청이 있는 부

동산에 대해서는 이의에 대한 처리가 완결되기 전까지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없고 공고기간 안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확인서를 발급하며, 신청인은 확인서를 가지고 2023년 2월 6일까지 법원에 등기 신청하면 된다.

다만 법무사 보수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 등기 해태과태료 및 장기미등기 과징금 대상이 될 수 있어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안군청 민원과 토지관리팀, 건축허가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특별조치법 시행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대상자들은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해 올바른 권리행사로 재산권을 보호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맛의 도시 정읍, 위생·맛·친절 모두 잡은 '정읍 맛집' 선정

정읍시가 다양한 음식문화 정착과 관광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 맛집 25개소를 선정하고 지난 25일 추가업소 6개소에 맛집 지정증을 수여했다.

이날 정읍 맛집으로 추가 지정된 곳은 단풍이인 한우 홍보관 대일점, 메이플트리, 미라네 청국장 복제지삼겹살, 양자강이다.

이번에 선정된 맛집들은 음식의 맛, 위생 및 서비스, 시설, 환경 등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의 현장 실사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선정된 업소에는 지정증과 표지판을

배부하고 식품진흥기금의 시설개선자금 용자 우선지원의 혜택이 주어진다. 또, 물품지원과 홍보 리플릿 제작, 시 홈페이지 게시판과 블로그, 페이스북 등 SNS 게재를 통한 전국적인 홍보 혜택을 받는다.

이와 함께, 음식문화 활성화 위탁 교육을 통해 선진 우수업소 벤치마킹과 환경개선, 상차림 촬영 등의 지원책이 뒤따른다.

시는 매년 정읍 맛집 등을 대상으로 영남주마인드향상 교육, 서비스개선, 노무재무 관리 등 이론교육과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실습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엔데믹(풍토병)으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시민들의 관광산업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학수 후보, '태양광 사업 적법한 절차' 주장

이학수 더불어민주당 정읍시장 후보가 "김민영 후보가 '단풍이인한우영농조합법인(이하 영농조합법인)'이 추진한 태양광 사업에서 이학수 후보의 불법이 있었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냐고 말했다.

이 후보는 "지난 2017년 4월 당시 조합장과 이사로부터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 대상 태양광 발전 임대사업'에 대해 동참 권유를 받고 (조합원으로서)참여하여 정상적인 절차로 허가를 받았는데 이후 변경된 사정으로 허가를 전북도청을 퇴직한 H과장에게 양도, 양수를 진행하였고, H과장이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인수 과정을 진행하던 중 2020년 현 진보 조합으로부터 '조합으로 사업권을 넘기라'는 요구에 그간의 진행비 5천만원을 받고 넘긴 것이 태양광 사업의 전부"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이 과정에서 김민영 후보는 (이학수 후보가) 조합으로부터 5천만원을 두 번 받았다"고 주장하는

데는 사실이 다르다"면서 "사업 운영권을 조합에 넘기면서 그간의 허가비와 진행비로 소요된 5천만원(조합의 결정 금액)을 명의를 허가자인 이학수 후보 통장으로 받아서 사업을 양수하여 실제 사업을 진행하려 한 H과장에게 그대로 전달했고, 처음 허가를 받기 위해 (이학수 후보가) 예치금(보증금)으로 불입했던 5천만원을 돌려받은 것이어서 김 후보의 (이학수 후보) 두 번의 5천만원 수수" 주장은 막대한 거짓말이어서 법적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후보는 지난 4월 14일 정읍경찰서에 접수된 '김민영 (전)정읍산립조합장의 배임 의혹' 고발에 대해 지난 5월 23일 '각하'로 처리된 것과 관련해 "각하는 소송이 제대로 된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해당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심리 없이 사건을 끝내는 재판을 말하는 것으로서 사실 고발자가 경찰서에 출석하지 않아 김민영 후보도 조사 없이 사건이 '각하'된 것일 뿐, '죄가 없다'는 '각하'의 결정이 아니어서 김 후보가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말이 안되는 아전인수적 해석이다"고 질타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